

KIA 마운드 영건들 활약 속 잊혀진 이름들

김윤동, 마무리 11경기만에 어깨 부상... 긴 재활의 시간
한승혁, 스프링캠프서 허벅지 부상... 내달 입대 복귀 불투명



KIA 타이거즈의 '젊은 마운드' 활약 뒤에 아쉬운 이름들이 있다.

KIA는 베테랑 타자들의 초반 부진과 외국인 투수 듀오의 기복까지 겹치면서 줄곧 하위권에 머물렀다.

기대와 다른 시즌이지만 문경찬을 중심으로 한 '젊은 마운드'는 KIA를 웃게 하는 힘이 있다.

고졸 2년 차 좌완 허준영이 시즌 초반 '깜짝 스타'로 떠올랐고, 김윤동의 부상 이후 문경찬은 마무리 자리를 꿰차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투수조 조장' 고영창의 부지런한 활약 속 지난 시즌 퓨처스리그 남부리그와 북부리그 다승1위·평균 자책점 1위를 싹쓸이했던 '예비역 듀오' 전상현과 박준표의 위력투도 팬들을 웃게 한다.

하지만 지난해와 다른 모습으로 팬들이 안타까움을 사는 이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김윤동이다.

지난 2년간 필승조로 자리를 굳혀 무려 163이닝을 소화했던 김윤동은 '특별 관리 선수'로 시즌을 준비했다.

그리고 김윤동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라는 이름 아래 2019시즌을 시작했지만, '김윤동 마무리 체제'는 단 11경기에서 끝나고 말았다.

김윤동은 4월 18일 롯데와의 경기 도중 어깨 통증으로 마운드에 주저앉았다. 대흉근 부분 손상 진단을 받은 김윤동은 재검진 결과 어깨 외손 부분 손상도 발견되면서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승혁도 기대감이 아쉬움으로 바뀐 이름이다. 지난해 선발로 첫 시즌을 보내며 7승을 수확했던 한승혁은 올 시즌 우선 좌투전 선발 후보였다. 지난 시즌의 선발 경험과 '공인구 효과'까지 더해 한승혁에게 거는 기대가 컸지만,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도



김윤동

한승혁

중 입은 내전근 부상으로 시즌에 제동이 걸렸다.

복귀까지 6주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 시즌 한승혁은 단 한 번도 1군 마운드에 얼굴을 보이지 못했다. 부상이 재발하는 등 재활에 실패하면서 퓨처스리그에서도 4경기에 나온 게 전부다.

KIA는 기대주 한승혁의 부재 속 시즌 내내 4~5

선발 고민을 하며, 다양한 투수로 선발진을 꾸려왔다. 재활군에서 훈련 중인 한승혁은 9월 중순 입대를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 마운드 '샷별'로 등극했던 유승철도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입단 두 번째 해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39경기에 나와 씩씩하게 마운드를 지켰던 유승철은 올 시즌에는 3경기 출장에 그쳤다.

4월 12일 SK전을 끝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던 유승철은 4월 17일 KT와의 퓨처스리그 경기 이후에 그라운드에서 자취를 감췄다.

팔꿈치 통증에 시달렸던 그는 최근 팔꿈치 수술을 받고 올 시즌을 접었다.

지난 시즌 불펜 마당쇠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황인준도 예타는 2019시즌을 보내고 있다.

5경기 11.1이닝이 황인준의 올 시즌 성적이다. 팔꿈치가 좋지 않아 고전을 했던 황인준은 최근에는 스피드 고민을 하고 있다.

황인준은 지난 시즌의 좋았던 감을 떠올리면서 1군 복귀를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승점 50' 고지 올랐다

K리그2 부천 원정 1-1 무승부
펠리페, 전반 20분 천금 골

광주 FC가 23경기 만에 '승점 50' 고지에 올랐다. 광주는 지난 1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K리그2 2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부천 FC와 1-1로 비겼다. 펠리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지만, 승점 1을 추가하면서 50점(14승 8무 1패)을 채웠다.

전반 초반 부천의 적극적인 공세를 막은 광주가 외국인 선수들의 움직임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9분 윌리안이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상대를 긴장시켰다. 윌리안의 슈팅은 골키퍼 최철원의 손에 막혔지만, 전반 20분 펠리페의 머리가 부천 골대를 뚫었다.

광주의 코너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공을 띄웠고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던 펠리페가 날렵하게 공중으로 뛰어올라 헤더로 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광주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29분 부천이 안태현과 문기환의 제치 있는 패스로 말론에게 공을 넘겨주었다. 왼쪽 측면에 있던 말론은 오른발 강슛을 날리면서 광주의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2분 두현석이 두 번째 도움을 기록하는 것 같았다. 프리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키커로 나서 중앙으로 공을 보냈고 이번에는 최준혁이 뛰어올라 헤더를 시도했다. 공은 부천 골대로 향했지만 골키퍼에 막혀 골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반 44분에도 두현석의 코너킥에 이은 펠리페의 왼발 슈팅까지 나왔지만 이번에도 최철원의 수비에 막혔다. 후반 16분 말론의 강력한 헤더가 골대를 맞고 튕겨나가면서 광주가 한차례 기세를 끌어내렸다.

광주는 후반 20분과 29분 각각 '신입생' 최호주와 하정요를 투입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부천의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후반 33분 광주의 수문장 윤평국이 연달아 호수비 패레이드를 하면서 진땀을 흘렸다.

두 팀의 후반 공방전이 소독 없이 끝나면서 경기는 1-1 무승부로 막이 내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펠리페가 지난 1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23라운드 경기에서 헤더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태풍의 선물? 유해란 깜짝 우승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
악천후에 취소... 2R 성적으로 결정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유망주 유해란(18)이 행운의 생애 첫 우승을 거뒀다.

유해란은 11일 제주 오라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예정이던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 악천후로 취소되면서 2라운드까지 성적 10언더파 134타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이날 태풍 레끼마의 영향으로 호우 경보가 발령된 제주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폭우가 내렸고 경기위원회는 정오에 정상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회를 예정된 54홀 대신 36홀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회는 전날에도 악천후로 2라운드를 다 치르지 못해 일부 선수들은 이날 이른 아침에 2라운드 잔여 경기를 마쳤다.

올해 프로 선수가 됐지만, 아직 KLPGA투어에 뭇 자락을 얻지 못해 2부인 드림 투어에서 뛰는 유해란은 초청 선수로 이 대회에 출전했다.

유해란은 전날 2라운드에서 버디 8개와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쳐 김지영(23)을 2타차로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KLPGA투어 출전권이 없는 초청 선수 우승은 이번 시즌 유해란이 처음이다. 2017년 최혜진(20)이 아마추어 신분으로 2차례 우승한 이후 2년 만이다.

유해란은 우승 상금 1억6000만원과 이번 시즌 남은 KLPGA투어 대회 출전 자격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전 경기 출전권을 손에 넣는 신분 상승을 이뤘다.

이에 앞서 지난해 25일과 지난 1일 드림 투어에서 2주 연속 정상에 오른 유해란은 3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김지영이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박인비(31)는 공동 8위(4언더파 140타)에 올랐다.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은 공동 13위(3언더파 141타)로 고국 나들이를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